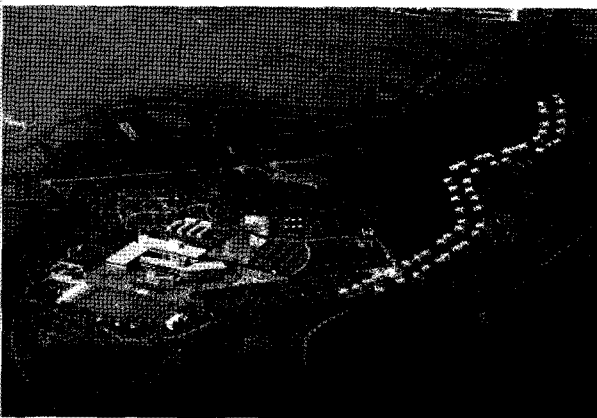


사업관리실 활동사항

농업인종합교육문화센터 건립

전북 장수군에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농업인종합교육문화센터는 지난 해 농식품부의 공모 절차를 거쳐 한농연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부지매입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부지는 약 160,000㎡ 정도로 도시시설 계획을 입안하고 있으며,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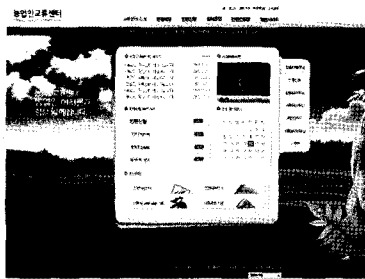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완료 되는 부지 매매 계약과 함께 설계를 하반기 중 진행하고 완공은 2012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설계와 착공 준비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중 착공으로

공사기간은 만2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위 그림은 최근 작성한 교육센터의 조감도로 교육관, 숙박동, 각종 시험포, 축사, 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센터는 농업인 교육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의 농촌체험과 귀농교육, 청소년들의 농업·농촌 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농업인교류센터 사업



농업인교류센터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업인단체가 함께 전문지식이 취약하고 영세한 농업인

층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민원의 처리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농업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2008년 한농연의 제안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했으며 2009년 5월 교류센터 사업자 선정 결과 한농연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교류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한 민원접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무료법률상담, 법무상담, 세무상담 등의 민원처리서비스를 수행할 예정이며 한농연회원뿐만 아니라 농업인이자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교류센터에서는 전문가자문단(법률, 법무, 세무 등)을 구성, 다양한 민원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전문가자문단이 민원발굴을 위해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 법률상담 및 지도서비스 등 교육과 자문서비스를 겸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